

# 곡성군, 유용미생물 공급 친환경농업 실현

농가 사용 희망일에 미생물 공급 올해 연말까지 110톤 생산 목표 병해충 방제 등 효과 탁월 입증 4월·75농가→6월·92농가 증가세

곡성군이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에 친환경농업 실현에 나섰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고초군과 광합성군, 유산군, 효모 등 4종의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는 지역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미생물 이용 농가가 4월 75농가, 5월 88농가, 6월 92농가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농가는 농업 미생물을 사용하면서 작물의 생육

촉진과 생산성 향상, 병해충 방제, 토양 개량, 축사 악취저감 등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군에서는 기존 수요일에만 미생물을 공급하던 시스템을 지역 농가에서 원하는 일자에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미생물 포장과 저온 저장시설 보관 등 시스템을 개선해 왔고, 지역 농가에서는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50톤 이상의 유용미생물을 지역 농가에 공급했고 올해 연말까지 110톤 이상의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농도 농업 유용미생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지역 농가에서 많이 활용



곡성군농업미생물배양센터 전경.

곡성군 제공

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해 5월 농업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멸균배양기 1.5톤형 4

대를 이용해 유용미생물 4종을 생산하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 휴가지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남농협, 쌀 가공품 소개 등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9일 무안 회산백련지 캠핑장과 야외물놀이장에서 휴가 중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함께 다양한 쌀 가공품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야외수영장에서는 ‘아침밥은 왜 중요할까?’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부모님이 아침밥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한 예시문항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었을 때 좋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이들에게 룰렛게임을 진행하여 국내산 쌀로 만든 쌀과자와 쌀도너츠 등을 선물로 증정하여 쌀에 대한 친숙함과 함께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했다.

이날 설문조사에서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아침밥을 먹는다고 응답하였고 가끔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잠을 더 자는게 좋아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아침을 빵이나 시리얼을 먹는다’, ‘가족이 아침밥을 먹지 않아서’라는 순으로 응답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캠핑장에서는 ‘전남농협 쌀 가공품 홍보부스’를 설치해 무안 회산백련지로 캠핑 온 가족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쌀로 만든 다양한 쌀 가공품을 소개했다.

무더위 캠핑장에서 더위에 지친 가족들에게 잠시 더위를 피하고 국내산 쌀로 만든 막걸리와 식혜를 맛볼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하기도 했다.

전남본부 임직원들은 캠핑장에서 가가호호 텐트를 방문해 무안 황토랑 쌀, 전남 쌀로 만든 즉석밥, 쌀국수 등을 전달하며 우리쌀 소비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진용 기자

## ‘담빛영화관’ 재개관 담양군, 15일부터 정상 운영

담양군 작은영화관 ‘담빛영화관’이 1개월간의 임시 휴관을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빛영화관은 1개월간의 임시 휴관 기간 중 안정적인 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에 위탁했으며 오는 15일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

작은영화관 주식회사는 담빛영화관, 해남시네마, 영암기찬시네마를 포함해 전국 17개 지점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11개 지점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군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자리한 담빛영화관은 2021년 8월 군민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을 열었으며 개관 이래 누적 관람객이 8만2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재개관한 담빛영화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성인 6000원,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은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병노 군수는 “다시 문을 연 담빛영화관이 군민에게 일상 속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청춘들락 수강생 모집 화순군청년센터, NCS 특강 등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청년센터 ‘청춘들락’에서 8월 프로그램인 취업 단기특강과 청춘문화살롱 수강생을 모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취업 단기특강은 공공기관의 이해 및 취업 준비 전략, 영역별 문제 풀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NCS 특강이다. 모집 기간은 17일까지이며 특강은 24일 오후 1시에 진행된다.

청춘문화살롱은 이면지, 계란판을 이용해 공기정화 식물을 식재하는 종이 화분 만들기다. 모집 기간은 14일까지이며 수업은 22일 오후 7시30분에 시작한다.

자격조건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화순군에 거주 또는 재직 중인 청년이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이다.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 프로그램은 청춘들락 누리집(www.hwasun.go.kr/youth)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센터(061-372-3000)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다양한 청년들의 수요에 적합한 취·창업 지원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발굴 중이며, 청춘들락이 지역 청년 인재의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박차 장성군, 현장 지도·점검 등

장성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나섰다.

군은 이달부터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 추이를 실시간 확인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곳에는 마스크, 일회용 장갑,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아이들에게는 눈높이에 맞춘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손씻기 교육 도구도 대여해 준다.

하반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은 10월부터 시작한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시설 입소자 등 건강 고위험군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곡성군 관계자가 배 선별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7일 선별작업을 거쳐 수출배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 곡성군 제공

## 곡성 배, 해외 수출길 올랐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곡성 명품 수출배가 지난 7일 철저한 선별작업을 거쳐 9일 부산항 첫 선적으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됐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농식품부 수출단지로 지정된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대표 정복기)은 현재 32농가, 33ha 규모의 농가 조직화를 통해 생산량의 10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GAP 인증 시설에서 효율적

인 선과시설 운영, 공동선별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높였다.

군에서는 명품 수출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과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배 봉지 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품목별 수출 요건에 맞는 해외 인증 취득과 수출 포장재 디자인 개발, 수출용 소포품 자체 구입비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는 수출 업체와 농가에 kg당 100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농수산물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을 추진, 수출배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이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농가를 격려했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품질 명품배를 생산해 수출길에 오르게 해준 농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곡성 명품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가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함평군, 함평모악산꽃무릇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함평군이 제25회 함평모악산꽃무릇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제4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임만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함평경찰서, 함평소방서, 함평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함평지사, 한국도로공사함평지사, 한국수자원공사함평수도센터 등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함평축제관광재단의 안전관리계획 설명에 이어진 위원들의 질의 응답과 함께,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발생시 대처방안, 교통관리 등 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축제개최 전 유관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임만규 부군수는 “안전은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관람객 안전대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람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5회 함평모악산꽃무릇축제는 다음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해보용천사꽃무릇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함평=신재현 기자